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조기노령연금의 기능과 사적연금시장 성장

□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베이비부머*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010년 조기노령연금**의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.

- 2010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만 55세 퇴직자는 9,832명으로 전년대비 12.8%, 2006년 대비 15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조기노령연금은 감액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기대수명을 가정할 경우 총액 면에서 손해이나 퇴직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손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.
- 일부 전문가들은 조기노령연금이 생계불안 해결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근로 동기를 떨어뜨리고 퇴직자들의 노후 생활에 손해를 끼치는 악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제도의 폐지 또는 개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
* 베이비부머(baby boomer)란 한국전쟁 이후에 출산율이 급증하면서 태어난 세대로 1955~63년생이 해당하며 전체 인구의 14.6%인 712만명에 달함.

**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55~59세에 미리 6~30% 감액된 연금을 평생 수령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278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함.

□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후의 생활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이외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- 금감원이 발표한 사적연금 시장의 최근 추세를 보면 퇴직연금시장은 매년 100% 이상, 개인연금시장은 매년 평균 15%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.
- 금년부터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제도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사적연금의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 - 퇴직연금은 2010년말 퇴직보험·신탁의 효력 만료,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여설정 의무화, 퇴직금 손비한도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사내유보 유인의 감소에 기인하여 2011년말 적립금이 약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.
 -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따른 세제적격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됨.

(2010년도 퇴직연금시장 분석 및 2011년도 시장 전망, 금감원, 3/23)